

2016. 7+8 | Vol. 185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DAIL

DAIL

UMOJA WA DAIL

Jambo~





푸른 여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2016년도 절반이 지나고 무더위와 소나기가 반복되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푸른 여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후원회원님의 가정에도 한여름의 녹음처럼 행복과 평안이 더욱 푸르고 푸르며 짙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5년만에 재개되는 뉴저지 영성수련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여정에서 다일공동체에 소나기 같이 시원한 맑은 물을 부어주시는 후원회원님을 보였습니다.

매일 힘들고 고된 일을 하시면서 틈틈이 모은 소중한 돈을 작년 네팔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후원하셨는데 올해에도 지난 1년간 근검 절약하여 모은 돈을 네팔 다일공동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셨습니다. 평생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로 후원을 하고 싶다면 겸손히 이야기 하시는 후원회원님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전세계 어디서나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는 후원회원님들이 계셨기에 지난 28년간 다일공동체 사업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기회를 찾지 못해 실천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다일공동체는 지난 달부터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전 직원 모두가 거리로 나가 직접 발로 뛰며 시민들을 만나고 다일공동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함께 동참하기를 독려했습니다.

촛불 하나, 돌, 세개가 모여 칠흑같은 암흑을 환하게 밝히듯 소중한 후원회원님 한분 한분이 모여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도 다일공동체는 세상을 아름답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후원회원님들의 손을 잡고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작은 형제, *취* 일드 올림



c.o.v.e.r.s.t.o.r.y

jambo~ 박상원 홍보대사가 직접 그린 탄자니아
 밥퍼센터 벽화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인사를 전
 합니다.

CONTENTS

02

봉사와 나눔 20년,
 박상원 홍보대사를
 만나다

08

생명과 직결되는
 물과 위생

12

베트남 다일비전센터
 프로젝트

14

다일의 국내외
 현장이야기

29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30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34

신규후원회원

36

후원안내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도한, 김은진

사진 | 김도한 디자인, 인쇄 |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6년 7월 발행처 | 다일공동체

주소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봉사는 축복, 나눔 생활 20년, 박상원 홍보대사를 만나다!

특집기사_배우 박상원

지난 1979년 연극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로 데뷔.
이후, '인간시장', '여명의 눈동자', '첫 사랑',
'모래시계' 등 대작 드라마에 연이어 출연하며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온 배우 박상원.

1996년 다일공동체와 인연을 맺은 그는
홍보대사로 활동한 지 올해로 꼭 20년을 맞았습니다.

내가 받은 박수는
대중에게 진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축복,
주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기쁨이 채워집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나눔의 촛불...

배우로서 대중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나눔을 시작하게 됐다는 박상원 홍보대사.

다일 아너스 멤버로 이름을 올리게 된 박상원 씨는 사회에서 인정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성숙한 기부문화 형성에 앞장섬으로 우리나라 저변에 나눔 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다일공동체 외에도 월드비전, 한국근육병재단, KOICA 등 다양한 NGO단체 홍보대사로서 해외 1:1 아동 결연은 물론, 나눔과 관련된 크고 작은 캠페인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박상원 홍보대사.

내가 나눈 것에서 끝나는 봉사가 아닌 나누는 과정에서 다시금 채워지는 봉사를 행하고 있다는 그는 주는 것 이상의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기에 오랜 세월 꾸준히 봉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빛을 나누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큰 빛을 밝히는 '촛불'처럼 '나눔'도 꼭 그와 같다고 말하는 박상원 홍보대사!
과연 그가 생각하는 나눔은 무엇인지,
박상원 홍보대사의 나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에서 밥퍼봉사





Q1 7월 7일 열리는 ‘다일 아너스 데이’ 행사 때 ‘아너스’로 추대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이며 추대 소감은 어떠한가요?

‘아너스 데이’는 사회 지도층으로서 명예(노블레스)만큼 의무(오블리주)를 다 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새기는 자리로 고액 후원회원들을 초청, 예우하고 사역에 대한 보고와 다일공동체의 미래 비전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1996년부터 다일공동체 홍보대사로 꾸준히 활동 중인데 이번 행사를 통해 ‘아너스’로까지 추대되니 기쁘면서도 사명감이 더해져 어깨가 무겁네요.

Q2 우리나라 사회 지도자층의 기부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문화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부액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약 12억원) 이상의 고액기부자 역시 미국은 2014년 한 해 동안 1064회, 현재까지 고액기부자의 누적기부액이 141억 달러(약 17조398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억 이상의 고액 기부자가 점점 늘고 있긴 하지만, 누적기부액은 아직 300억 원에 불과하다는데요. 고액 기부자들이 솔선수범해 사회에서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성숙한 기부문화를 보여줌으로 우리나라 저변에 성숙한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 됐으면 합니다.

Q3 다일공동체 홍보대사로 활동한 지 올해로 20년을 맞았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다일공동체 외에도 한국근육병재단, 월드비전, KOICA(한국국제협력단) 홍보대사로도 현재 활동 중인데요. 이같은 단체의 홍보대사를 기꺼이 할 수 있었던 데는 팬들의 사랑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받은 박수는 대중에게 진 빚’이라는 말을 늘 기억하려 합니다. 배우로 활동하면서 대중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작게나마 보답하고 싶어 나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 ①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밥퍼센터에서 아이들과
- ②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밥퍼봉사
- ③ 우간다 다일공동체 창립예배에서 선물나눔



우간다 다일공동체 창립예배에서 아이들과

Q4 무엇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하물며 남을 위한 봉사를 어떻게 20년 동안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봉사가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의미에 그쳤다면 저도 20년 간 꾸준히 봉사를 이어갈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나눠 주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제가 얻어 가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봉사는 주는 것 이상으로 제게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삶에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제게는 봉사를 하며 느끼게 되는 이러한 가치가 참 소중한거든요. 저도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 꾸준한 봉사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Q5 다양한 단체에서 봉사활동 중이신데, 다일공동체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다일공동체 내 11 아동 결연이나 만원의 행복과 같은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과 인연을 맺고, 탄자니아와 캄보디아 등 해외 결연을 맺고 있는 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2009년에는 중국 다일공동체가 위치한 훈춘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기증하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다일공동체 홍보대사로서 '크리스마스 거리 성탄예배'나 '다일공동체 700만 밥퍼 나눔 잔치' '푸드일' 등 다일공동체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해서 다일공동체의 사역을 알리는 홍보대사 본연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Q6 이 외에도 두 차례 사진전을 열어 '억 단위'의 수익금을 다일공동체 및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단체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Q7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Q8 이처럼 오랜 기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렵거나 힘들었던 때는 없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 하셨나요?

어렸을 적, 친척 누나의 사진기를 물려받게 되면서 사진에 재미를 붙이게 됐어요. 사진학과를 생각했을 만큼 사진에 대한 애착이 컸죠. 지금도 여전히 하고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부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2011년 여름에 에티오피아로 봉사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당시 참전해 한국에 도움을 줬던 나라죠. 그곳에서 6.25 참전 용사들을 만나고 왔는데 당시, 그들의 참혹한 현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집은 지붕, 벽 할 것 없이 모두 내려 앉아 있었고, 변변한 화장실 한 칸도 없었죠. 극심한 물 부족 문제로 다양한 질병에 노출돼 있기도 했고요. 그런 곳에서 한반도가 그려진 훈장을 아직도 소중히 여겨 가슴에 달고 있는 참전용사들을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은인의 나라에 보답하고 온 당시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죠. 연예인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전 예우를 받는 중요한 자리에만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땀 흘려가며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내가 배우이지만 이렇게 나눔 활동을 해도 되는 걸까?'하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그건 네가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도와라. 네가 필요한 자리라면 기회가 주어질 때 나서서 해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내면에 품고 있던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자와 단자니아 다일공동체 센터벽화작업 중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에서 금식 전 손닦기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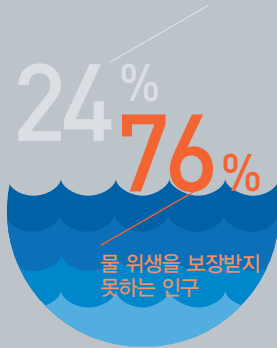
물과 위생

특 집 기사

‘때 이른 무더위에 급해진 여름.. 여름 맞춤형 다이어트 전략은?’ ‘여름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 몸짱 기획전 진행’ ‘다가오는 여름,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까지 한 번에...’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온 기사들입니다. TV에서 역시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몸짱 다이어터들을 내세운 방송을 앞 다투어 편성해내기 바쁜 요즘, 여름을 앞둔 대한민국의 관심은 온통 ‘예쁜 몸매 만들기’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날씨, 지구 건너편의 관심사는 전혀 다릅니다.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검은 대륙 탄자니아. 4년 전 다일공동체가 세워지고, 현재 다양한 나눔 사역을 펼치고 있는 이곳은 뜨거운 날씨에 물은 메마르고 그나마 남아있는 물조차도 고온의 날씨에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갖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 위생을 보장받는 인구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밥퍼센터 주변

비위생적인 환경 탓, 수인성 전염병 위험에 무방비 노출!

탄자니아에서 충분한 물 위생을 보장받는 인구는 2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인당 하루 식수 필요량이 2~4L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76%의 사람들이 위생적인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오염된 물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의 위험에 사람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WHO 조사에 의하면 작년 8월부터 세 달 여간 탄자니아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 수는 9천 871명으로 사망자만도 15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잘 먹지 못 해 면역력이 약한 데다 비위생적인 환경 탓에 수인성 질병이 발생하면 급속도로 퍼지게 되기 때문인데 사망자의 대부분이 5세 미만 어린아이라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위생에 대한 인식 부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 돼야...

3시간 손을 씻지 않았을 때, 번식하는 세균의 수는 약 26만 마리! 손만 잘 씻어도 질병의 70%는 예방됩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오는 수인성 질병 역시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약 50~70%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위생개념이 희박하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양치도 거의 하지 않으며 주위가 지저분해 파리떼가 우글거려도 개념치 않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위생적인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에 펌프나 탱크, 우물 설치 및 정수시설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업으로 물 위생을 보장받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 혜택을 보는 이들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꼭 병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깨끗한 물을 활용하고, 나아가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이들 뒤편에 잘못된 위생 습관을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일공동체의 위생 개선 사업



밥 먹기 전 손 씻기



손톱, 발톱 자르기



자기 전 양치하기




주위 환경 정화하기

꾸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다일공동체의 위생 개선 사업'

그래서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에서는 '밥 먹기 전 손 씻기', '손톱, 발톱 자르기', '자기 전 양치하기', '주위 환경 정화하기' 등 지역 주민들에게 바른 위생 관념을 심어주는 보건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다일공동체가 세워짐과 동시에 시작했으니 교육을 시작한 지도 올해로 4년째 처음 변화는 미미했지만 꾸준한 인식 개선 교육 결과 지금은 밥 먹기 전 손 씻기는 물론 손톱, 발톱도 스스로 자르는 등 제법 바른 위생 관념이 자리 잡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생충 감염을 치료하는 구충제 사업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모기장 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모두 탄자니아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한 것으로 탄자니아 국민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게 된 사업의 일환입니다.

6.25 전후만 해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반세기 만에 우리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돋움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외모 가꾸기도 좋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 과거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고있을 이들을 잠시,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단체들이 이 같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값진 도움을 잊지 않고, 개도국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나눔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



3

- ① 손 씻기
- ② 손톱깎기
- ③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양치교육
- ④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에서 아이들에게 지급해주는 양치도구



4



“밥퍼에서 꿈퍼로”

한 생명을 품다
꿈다일 품다일

네 꿈은 뭐니?

우리는 이 질문을 어린이들에게 쉽게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저 슬픔에 찬 눈망울뿐인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내 꿈이 무엇인지조차 모른채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입니다.

손도 작고 키도 작지만, 하는 일은 어른과 같습니다.
꿈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어린이들에게 꿈은 현재의 삶에서 그나마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밥퍼센터로 오는 것’ 일지도 모릅니다.

다일은 이 어린이들에게 진짜 꿈을 갖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를 품는 기쁨을 당신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생명을 품는 일,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한 달에 3만원이면 균형잡힌 영양식, 의료 혜택, 위생용품
생필품, 교육과 학용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32절



1:1 International Child Sponsorship



베트남 다일공동체

베트남 다일비전센터 건립 프로젝트

Vietnam Dail Vision Center Project

베트남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쪽은 중국과 서쪽은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1.5배 정도이며 북부의 홍강과 남부의 메콩강을 중심으로 쌀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쌀농사 국가입니다.

1975년 북베트남의 공산당이 사이공을 함락한 이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일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86년부터 개혁, 개방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지만, 개발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으로부터의 대도시 이주자가 증가해 이들 지역간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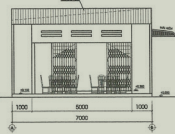
베트남 다일공동체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2002년 6월 다일공동체 설립자인 최일도 목사가 알리안츠 생명으로부터 한 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으로 받은 상금 5천만원을 베트남에 전액 헌금하여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지정된 호치민시에 있는 야딘병원과 암병원에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 출발하여 2010년 8월 베트남 정부로부터 정식 NGO 허가를 받아 빈탄군 빈흥화 마을의 고아, 과부,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에게 무료급식 및 도시락지원, 생필품 지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 건립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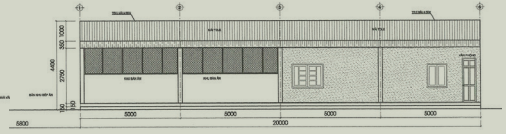
MẶT NHÌN TỪ ĐƯỜNG VÀO



MẶT ĐŨNG PHÍA TRƯỚC



MẶT ĐŨNG PHÍA SÂN NHÀ VĂN HÓA



다일비전센터 건축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은 베트남 호치민시 7군 탄흥 마을입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로 복권판매수익금 및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는 빈민층으로 대부분이 장애인, 독거노인, 결손가정의 아동으로 무관심과 가난 속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호치민 적십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호치민시 7군 적십자에서 문화행사 및 회의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지원받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무상급식(밥퍼) 및 교육프로그램 (방과후 교실, 제빵기술교육)을 진행할 다일비전센터를 신축하여 안전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결식아동에게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장소로, 한창 꿈을 키울 아동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더불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관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건축지원 및 기자재 등의 후원과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건립예정 2016년 12월(예정)

건립예산 5천만원(\$50,000)

수혜지역 호치민 7군 지역

수혜대상 호치민 7군 지역 결식아동 및 장애인, 사회소외계층

주요사업 무상급식제공 - 주 5회 120여명에게 식사(밥퍼/빵퍼)제공
구충제,영양제 지급 - 지역민들에게 구충제와 영양제를 지급하여 영양상태 개선
교육지원 - 신축 센터에서 교육 봉사자들을 주축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영어, 한국어 및 예체능 등)과 자립기술교육(제빵)을 진행





현 · 장 · 이 · 야 · 기

네팔 NEPAL



최홍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네다일의 보물, 청소년 자원봉사자

네팔에 온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처음 네팔에 왔을 때 저는 사역으로 조금 지치더라도 그보다 네팔과 네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것들로 인해서 선부르게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자처해 나쁜 원장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무엇을 주고, 가르치고, 만들어주기보다는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조금씩이라도 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즈음부터 저는 매일 일과를 마치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한 장씩 읽게 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제자양육을 받도록 해 스텝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무엇이나 준비되고 무엇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로 세워 가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나는 누구이며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찾게 되도록 살아있는 말씀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제자들을 준비하기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10학년까지 공부를 마친 청소년들 가운데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고 11, 12학년에 들어가는 청소년들 가운데 신실한 몇 명의 제자들에게는 주방이나 교실에서 스텝들을 보조하는 인턴십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아이들

저희는 네팔에서 잘 훈련받은 제자들 중 뜻이 있는 아이들은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고, 다일공동체 DTS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또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어와 한국어까지 소화할 수 있어서 나눔과 섬김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들 모두가 세계 열방의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네팔 다일공동체에는 40여 명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밥퍼'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며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자 되는 첫 걸음을 떤 아이들은 예배에서는 찬양과 율동으로 섬김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팔 다일공동체의 보물과 같은 이 아이들은 10학년까지의 기초교육을 잘 마친 후, 초급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플러스 2과정을 밟게 되는데 빈민촌 아이들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학비라 저희는 이들을 장학생으로 키우길 원합니다. 이들을 마지막까지 살뜰히 보살피 네팔의 꿈나무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세요! **da:ll**



자원봉사 및 후원안내

최홍 원장: 977-98038-00670,
977-98494-58330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



네팔 다일공동체 | +977-98494-58330



봉사하는 아이들2



미주다일공동체 영성수련회 단체 사진

미주 U.S.A



김교운 미주 다일공동체 원장

미주 17기 뉴저지 다일영성수련회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 동안 뉴저지 뉴튼수도원에서 다일영성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미주 16기 시카고 다일영성수련회가 열린 지 2년 만에, 뉴저지에서는 5년 만입니다. 뉴저지, 뉴욕에서 이미 영성수련을 통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 누리는 벗님들과 그동안 다일영성수련회를 사모하던 분들의 간절한 소망으로 마련된 이번 수련회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너무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수많은 아픈 사연들을 갖고 참석한 벗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우미들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수련회 인도자 최일도 목사님의 헌

신과 섬김이 어우러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족과 담을 쌓고, 이웃들과 선을 긋고, 교회를 등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하던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나를 비난하던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해주었습니다. 교회 가기를 불편해했던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던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고, 찬양이 은혜의 단비가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찾은 벗님들은 벌써부터 미주 18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18기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찾은 미주 17기 모든 벗님들이 날마다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며 행복찬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뉴저지장로교회와 뉴욕 목양장로교회의 아름다운 선교 사역

작년 네팔 대지진 후 최일도 목사님은 네팔에서 지진 복구활동을 한 후 네팔을 돕기 위한 미동부지역 순회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미주 17기 뉴저지 다일영성수련을 마친 후 1년 전 순회 집회한 교회들 중 가장 뜨거운 마음을 전해주셨던 뉴저지장로교회(담임 김도완 목사)와 뉴욕 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를 그동안 네팔에서 이루어진 지진복구 활동 등 선교 활동 관련 보고와 집회를 가졌습니다.

뉴저지장로교회는 만물이 넘는 선교비를 보내주어 지진 피해가 가장 심했던 신두팔족 지역의 40여명의 고아들을 위한 시설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목양장로교회 역시 만물이 넘는 선교비를 보내주어 신두팔족의 완전히 붕괴됐던 호산나교회를 재건하는데 귀히 쓸 수 있었고 다른 성전들의 재건도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양장로교회 송병기 목사님은 오는 10월에 있을 호산나교회 성전헌당예배에 참석하셔서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을 전해 주기 위해 벌써부터 특별 선교비를 모으고 계십니다.

개교회 성장과 건축에만 관심이 있는 교회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앞장서는 뉴저지장로교회와 뉴욕 목양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DaIL**

미주 다일공동체 | +1-770-813-0899



뉴저지 장로교회 앞 최일도 목사님과 김도완 목사님



목양교회 예배당에서

우간다 Uganda



김혜경 우간다 다일공동체 원장



캐나다에서 온 젊은이들

캐나다에서 온 젊은이들

캐나다 토론토중앙교회 변창민 전도사님과 김성훈 청년이 우간다로 여행 오셔서 자원봉사자로 섬겨주셨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젊은 오빠들이 오니 아이들의 눈들이 몹시 반짝거리더군요.

마침 우기 철에 오셔서 두 분이 봉사하는 날마다 비가 왔었는데 얇고 낮은 교복 하나만 걸치고 몹시 추워하는 아이들을 보고 본 교회에 돌아가서 스웨터 모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토론토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헌 옷이 아닌 새 옷을 장만하여 곧 200여 벌을 보내신다고 하네요.

변 전도사님의 배려로 전체 학생 사진과 학급별 단



학급사진 전달하는 모습

체 사진을 찍어 캐나다에서 우편으로 보내주신 사진을 액자에 담아 각 담임선생님께 전달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사진 액자 받아 들고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변 전도사님과 성훈 형제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새 교복을 입은 천사들

학비를 내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던 '니콜라스'와 '쉬라'가 후원회원이 보내 주신 아동결연 후원금으로 다시금 밝고 환한 얼굴로 학교에 왔습니다. 새 교복과 새 양말을 신고요.

후원회원님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복이 너무 낡아서 속살이 다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 새 교복을 입히길 바라며 우간다 다일공동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하와이에 계신 예쁜 천사께서 응답해 주셔서 100명 정도의 어린이에게 새 교복을 입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하와이 천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DAIL](#)

우간다 다일공동체 | +256-77107-2382



새 교복을 입은 천사들

필리핀

PHILLIPHINE



한성희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2016년 어린이 성경학교

2016년 어린이 성경학교가 170명의 아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주제로 나이별, 그룹별 반을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교사로 참석한 사람만 20명, 60세가 넘는 분부터 12살 소녀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이어지는 밥퍼에서는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따뜻함이 느껴졌고 그 안에서 희망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인가는 작은 마을 말리아에서 민족을 구원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배출될 것을 믿으며, 저런 무릎을 펴고 오늘도 웃어봅니다.



환상의 의료팀

6월이 시작되는 첫날 참으로 오랜만에 의료선교가 있었습니다. 박성민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환상의 의료팀이 방문하여 70명이 넘는 주민들을 살피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침술을 너무 오랜만에 시술하는 관계로 주민 분들이 너무 무서워하셔서 원장님과 스텝들이 먼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거뜬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놓으시고 침을 맞으셨고 정말 좋라며 다음 번에도 꼭 맞겠다고 언제오는지까지 재차 물어보셨습니다.

심각한 피부병과 고혈압, 비타민 부족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많은 이곳 빈민촌에서의 의료 선교 모두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쳐진 의료선교 현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한 것은 오직 치유하시는 성령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DaIL**



자원봉사 및 후원안내

+63-927-560-7346

+63-91-6430-6937



필리핀 다일공동체 | +63-92-7560-7346

- ① 공과 공부 중인 아이들
- ② 성경학교 그룹활동 중인 아이들
- ③ 의료 선교 중인 사람들



캄보디아 CAMBODIA



김형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오머누억 마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는 대한적십자사 헌혈 기부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반티스레이 지역 오머누억 마을의 지리피해자들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사업들을 시작하기 이전에 50가구 이상의 대상자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필요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문한 대상자들의 집은 일반적인 캄보디아 집도 있었지만 대부분 벽, 지붕, 바닥 어느 곳 할 것 없이 허령하거나 무너져 없는 집들도 있었으며, 일반가정의 닭장보다도 못한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믿어지지 않은 집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가정을 방문했던 현지 스텝조차 같은 캄보디아 사람이지만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에 뜨거운 눈물을 보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시엠립 주 사회부에서 사업 계획을 보고한 결과 승인뿐 아니라 아낌없는 지원까지 약속 받았습니다.



닭 지급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

헌혈 기부권 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은 지뢰 피해로 인해 얻은 불편한 몸 때문에 제한적인 직업 활동 및 지역사회의 무관심으로 생계가 어려운 지리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닭을 지원하기 전 지원 받을 각 집마다 닭장을 만들 어주었습니다.

한 대상자는 완성된 닭장을 바라보며 자기 집보다 더 좋다며 기뻐하였는데 그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닭을 나눠주는 날은 나눔 속에 사랑을 느낀 기쁜 날이었습니다. 닭을 운반하는 운전사 아저씨는 본인의 일처럼 닭들이 더워서 아프거나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였고, 봉사하는 날 아침에도 일찍부터 나와 준비를 함께하며 사랑의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닭을 받은 한 수혜자는 앞으로 더 많은 닭을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며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돕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나눔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지지치 않고 갑자기 내리는 거센 빗속에서 사람도 닭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한 그들이 우리의 작은 나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나눔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DAIL**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 +855-12-808-861



캄보디아 지뢰 피해자 집

베트남 VIETNAM



이애리 베트남 다일공동체 원장

오늘은 내가 주인공

베트남다일공동체와 함께한 어린이날 행사



국제어린이날행사
선물받은 리 황 김 쭈아우

어릴 적, 5월 5일 어린이날은 생일만큼이나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 만큼은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고 놀이공원도 놀러 가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던 날로 소중히 기억됩니다.

국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6월 1일 베트남 다일공동체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른들도 한 마음이 되어 신나게 즐겼던 베트남의 어린이 날,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약 1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부모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큰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Bethel Vina 이인혁

법인장님께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책가방 10개를 준비해주셨으며, 1:1 결연 후원처럼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덕재, 조종근, 최태인, 최태정 학생이 각각 베트남 친구들을 위해 자전거를 한 대씩 후원하여 베트남 친구들의 등학교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또한 LOTTERIA, 사이공드림교회 김사복 형제님,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추원미 집사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푸짐하고 맛있는 간식과 햄버거를 준비해 주셨으며, 잔칫날 빠질 수 없는 음식을 배부리 먹을 수 있도록 사이공드림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등 어린이날 덕분에 베트남 밥퍼는 풍성한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어린이날답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후원기업과 후원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베트남 다일공동체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해주시고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더욱 넘쳐난다면 베트남 어린이들의 미래는 항상 맑음일 것입니다.

비록 하루이지만 오늘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선물을 만들어 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DAIL**

베트남 다일공동체 | +84-9038-20918



6월1일 국제어린이날 맞이 자전거전달식



6월1일 국제어린이날 행사 선물전달식



호프클래스 학생들 가정 방문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호프클래스 3기 학생들 가정방문

호프클래스 3기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4개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요즘, 학기 초부터 계획했던 학생들의 가정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응데쉬 선생님과 호프클래스 담당 정제운 간사님이 매주 목요일 방과 후 4~5명의 학생들과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매일 돌을 깨며 살아가는 힘들고 가난한 가정들이지만 자녀들이 호프클래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힘이 난다는 부모님의 한결같은 고백은 저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하루에 한 끼니 겨우 옥수수가루를 찌서 먹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매일 호프클래스에서 간식도 먹고, 밥도 먹어 자녀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키도 컸다는 학부모들의 말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기철에 특히 말라리아에 자주 걸려 고열로 고생하는 자녀들이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여 너무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기도로 물질로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비록 쓰러져가는 흙집과 천장에 구멍이 송송 뚫려 비가 새는 함석 집에 살지만 호프클래스에서 희망을 일구어가는 자녀들로 인해 지금의 고생이 힘들지 않다는 부모님들의 고백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두 분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인사에 목직한 소명을 되새김질하게 된다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더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희망 없는 쿤두치 채석장 빈민촌 아이들에게 날마다 구슬땀을 흘리며 희망을 심어주는 호프클래스의 우리 스태프들을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ope, Our Children! ^^



호프클래스 학생들의 칭찬과 격려의 시간

호프클래스 아이들의 칭찬과 격려의 시간

학기 초반 해도 그렇게 얌전하고 차분하던 아이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 인가 봅니다. 수업에 열중하다가도 쉬는 시간만 되면 소란스러운 장터가 되곤 합니다.

특히 몇몇 아이들은 센터를 휘젓고 다니고, 어떤 아이들은 장난이 심해서 울기도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친구 우애를 다지기 위해 급기야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매일 2교시 수업 후 티타임 시간에 친구들과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 칭찬과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의 눈을 보며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착하다고, 너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시간을 갖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친구들과 덜 다투고, 제법 양보도 합니다. 역시 아이들에게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악인가 봅니다.

“UBUNTU”(우분투) “네가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희미해져 가는 아프리카의 고귀한 사상이 작지만 우리 호프클래스의 칭찬과 격려의 시간을 통해 회복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이 나중에 쿤두치의 아픔들을 치유하고, 탄자니아의 아픔들을 치유하며, 아프리카의 아픔들을 치유하는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이 특별한 시간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dajL**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255-755-154-246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6월 1일 중국 어린이날

6월 1일은 중국의 아동절, 즉 어린이날입니다. 자녀가 보통 하나인 중국의 아동절은 대단합니다. 아동들이 온가족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기도 하지요. 중다일도 아동절을 맞아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다채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각 소학교의 운동회 참가와 졸업생 언니 오빠들이 보내온 아동절 선물도 받고 전체 외식과 영화 관람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아동절 전날에는 현지 중다일의 후원단체인 훈춘시 공상련(공업상업연합회)과 함께 유원지로 소풍도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 속에 빠듯한 아동절 일정을 기쁘고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아동절 나들이 나온 아이들

새 가족 李忠天(리중티엔)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리중티엔은 5살 한족 남아입니다. 엄마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와 살다가 다일 어린이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잘 노는데 밤이 되고 졸리면 할아버지를 찾으며 울곤 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울면 엄마를 찾으며 우는데 엄마, 아빠와 살아 본 적이 없는 중티엔은 할아버지를 찾네요. 또 중티엔은 고개를 가우뚱 한 것처럼 목이 흰 상태입니다. 할아버지 말로

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티엔이 적응을 하고 나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중티엔이 잘 적응하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중국 다일공동체 새가족 리중티엔

향미와 문녀의 생일 파티

향미와 문녀의 생일이 하루 차이라 함께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특히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문녀는 다일 어린이집에 와서 맞이하는 첫 번째 생일이었는데 온가족이 함께하는 시끌시끌한 축하에 무척 속스러워했습니다. 새 가족과 처음 생일을 맞이하는 문녀를 위해 풍선도 붙여 장식도 하고 작은 선물과 함께 직접 그린 그림, 예쁜 카드도 마련했습니다. 문녀와 향미의 미래를 온 맘 다해 응원합니다! **다일**



중국 다일공동체 문녀와 향미 생일

다일 천사병원 DAIL ANGEL'S HOSPITAL 다일 작은천국 DAIL LITTLE HEAVEN



임정순 다일 작은천국 원장

김휴식 님 편히 잠드소서

2014년 3월 6일 서울역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입소하신 김 휴식님의 건강상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2년 전 비강암 진단을 받아 턱관절에서부터 뇌까지 암세포가 전이 되어 왼쪽 시력이 실명되었고 오른쪽 눈은 20년 전 사고로 다쳐 양쪽 눈 모두 실명이 돼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암세포 전이로 인해 시한부 판정을 받은 김 휴식님의 생명의 끈 유지 기간은 길어야 2달 남짓이었습니다. 더 이상 깜깜한 어둠 밖에 볼 수 없는 김 휴식님에게 한 줄기 밝은 빛, 작은 빛이 되어 주기 위해 다일작은천국에서는 김 휴식님을 한 식구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일작은천국 직원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김 휴식님은 삶의 끈을 놓지 않았고 이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달을 넘어 입소한 지 1년 되는 2015년 3월 6일 최 일도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 영적 기쁨의 시간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김 휴식님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가족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다일작은천국에 입소하기 전만 해도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렇게 다일작은천국 입소 후 삶의 기쁨을 찾으며 약 2년 2개월(26개월)을 생활하시다 2016년 5월 8일 주님의 품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다일작은천국을 통해 오랫동안 소식이 닿지 않았던 김 휴식님을 찾은 동생분과 큰 형님은 김 휴식님의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해준 다일작은천국에 고마움을 느끼고 다일천사후원에 선뜻 손길을 내밀어 주셨

습니다. 다일작은천국은 이 땅의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된 분들이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고 그 마지막 삶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휴식씨 장례

봉사자의 섬김으로 만들어가는 다일작은천국

2016년 6월 6일 현충일을 기념하여 다일작은천국에 날개 없는 천사들이 다녀갔습니다. 다일공동체 소개 및 국내외 분원들의 사역 소개를 듣고 다일공동체는 참 아름다운 사역을 한다며 감탄과 동시에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충일을 맞이해 입소 어르신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식사까지 정성스러운 손길로 하나하나 같이 준비해주셔서 다일작은천국의 현충일은 참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다일작은천국의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분들이 대부분으로 처음 입소하셨을 때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면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작은천국 직원들과 자원봉사자의 섬김과 헌신으로 처음의 모습은 사라지고 직원과 봉사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십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합니다'라는 다일작은천국의 슬로건처럼 어르신들과 웃고 울고 함께 지내겠습니다. **dail**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 02-2213-8004

밥퍼 나눔 운동 본부 BABFOR SHARING MOVEMENT



고세인 밥퍼 나눔운동본부 부분부장

5월 2일 오병이어의 날 행사

다일공동체에서는 매년 5월 2일을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밥퍼의 28년째 이어져오는 놀라운 나눔 현장을 보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부르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쌍굴다리의 기적’이라고 부르셨는데 밥퍼에서는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이 놀라운 나눔의 기적을 이어 가고자 저희는 매년 5월 2일을 ‘오병이어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오병이어의 날 행사는 예년과 달리 특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오병이어의 날 행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나 외부 봉사자가 많이 참여하였는데 올해는 외부 손님을 초청하지 않고 국내 전 사역지에서 다일공동체를 섬기는 가족들이 모여 땀 흘리며 다일의 나눔과 섬김의 영성을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밥퍼 명예본부장님인 조용근 장로님의 후원으로 밥퍼에서도 가장 고령이신 200 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일사각오’를 관람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셨던 모습에 모두가 숨죽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 댁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너무 좋은 영화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지금의 세상은 정말 편해지고 좋아졌다는 말씀 등 여러 소감들을 제게 전해 주셨습니다.

5월 10일 어버이날 행사

밥퍼의 5월에는 또 한 가지 기념일이 있는데 바로 어버이날 행사입니다. 올해는 5월 8일이 주일인 관계로 5월 10일에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비가 와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년에 한 번 있는 효도잔치를 많은 어르신들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날인 걸 잘 알기에 굳은 날씨에도 최선을 다하여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풍성하게 준비한 음식과 선물, 흥겨운 공연이 어우러져 신명 나는 잔치를 벌였고 밥퍼를 섬기는 가족들은 어르신들께 큰 절을 올리며 건강을 빌어드리고 더욱 잘 섬기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밥퍼 효도잔치를 위해서 바쁘신 외중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호식이 두 마리치킨에서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조리 차량과 함께 회사 버스로 많은 직원 분들이 오셔서 치킨 1000인분을 바로 튀겨 음료와 함께 제공해 주셨고 어르신들 선물



오병이어의날



어버이날

도 1000세트 후원해 주셔서 포장부터 나눠드리는데 까지 함께 도왔습니다. 동부교육청 또한 손으로 직접 만든 카네이션 1000개를 어르신들 가슴에 달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밥퍼 배식봉사까지 해주셨습니다.

공연팀으로는 소망교회 예빛 풍물팀과 헤세드 드림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팀이 함께하셨습니다. 실내에서 하다 보니 공연하기에 좁았지만 밖에 계시는 어르신들까지 들으실 수 있도록 예빛 풍물팀은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실내 실외를 뛰어다니시며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헤세드 드림 챔버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인 청소년 오케스트라인데 이날 하루만큼은 수업보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학교 수업 대신 효도잔치에 참석하여 공연을 빛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번 효도잔치를 위하여 헤세드 드림챔버 팀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아리랑'과 '백세인생'을 한 달 이상이나 준비해 오셨는데 풍물과 섞이면 더 흥겨울 것 같아 즉석에서 예빛 풍물팀과의 협연 제안을 드렸더니 즉석 협연으로 더욱 신명나는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어버이날 효도잔치를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굵은 날씨에도 잔치를 열어줘서 고맙다고, 이런 효도는 밥퍼 에서만 받아본다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을 잡고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효도잔치를 열어드릴 테니 100세 까지도 건강하시라고, 앞으로 더욱 더 잘 섬기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DAIL**

설곡산다일공동체

SEOLGOKSAN

DAIL COMMUNITY



류주형 설곡산 다일공동체 부원장

맨발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설곡산의 산책로와 기도길을 정비했습니다. 겨우내 산책로에 쌓였던 낙엽들을 쓸어내고 시야를 가리는 가지들을 정리하고 나니 포슬포슬한 황토와 부엽토가 드러나 맨발로도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맨발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담은 기도길도 새로 정비하여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곳곳에 등산 중 편히 쉴 수 있는 쉼터와 뽀뽀한 적송들 사이에서 휴식하며 묵상할 수 있는 삼림욕장, 그리고 피곤해진 발을 시원하게 씻을 수 있도록 계곡도 잘 꾸며두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야영장도 준비가 되어 있어 공동체 가족들과 DTS수련생들이 먼저 자연과 가까이, 바닥과 가까이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캠핑이 우선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여름을 맞이하여 설곡산 다일공동체는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쉼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머무실 방과 자연을 만끽할 등산로와 기도길을 가꾸어 산 전체를 힐링 공원으로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dail**



맨발로에서 맨발로



맨발로 산책 중인 사람들

>>>

짐이 더 무거워질 때 더 충분한 은혜를 베푸시고

짐이 더 무거워질 때 더 충분한 은혜를 베푸시고
수고가 더 커질 때 더 풍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네.
더해진 고난에 차비를 더해 주시고
시련이 배가할 때 평강을 배로 주시네.

우리의 인내가 바닥날 때,
하루의 반도 가기 전에 우리의 힘이 고갈될 때,
우리의 모아 둔 자원이 막바지에 이를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주심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네.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고 그분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능력의 한계는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다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함으로부터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신다네.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I . am . a . happy . volunteer

밥 퍼



jt 트러스트그룹 |

jt 트러스트 그룹에서는 300만 원의 일일 배식비를 들고 찾아와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밥 한 끼가 필요한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놀라셨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봉사 오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밥퍼에서 자주 뵙고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



큰빛 교회 |

큰빛 교회에서는 교역자분들과 성도 분들이 일일 밥퍼 봉사를 오셨습니다. 큰빛 교회는 최일도 목사님의 절친이신 박영득 목사님이 계신 교회로 300만 원의 일일 배식비도 후원금으로 가져와 주셨고 지속적으로 찾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서울우유 |

밥상공동체 어르신들이 늘 기다리시는 봉사팀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우유 임직원 봉사팀 이신데요, 오실 때마다 각종 우유를 후원해 주시는데 이번에도 우유 800개를 후원해 주셔서 식사를 마친 밥상공동체 식구들이 행복해하시며 드셨습니다. 앞으로도 봉사과 나눔으로 함께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한양대 함께한대 합창단 |

한양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함께한대 합창단이 밥퍼를 찾아 주셔서 봉사도 하시고 어르신들을 위한 아름다운 하모니도 들려주셨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모아 30만 원의 후원금도 전해주시고 많은 감동을 받고 가신다며 많은 동문들이 봉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중국



훈춘시 공상연합회 |

훈춘시 공상 연합회 3회 회원분들이 지난 춘절에 방문한 이후로 다일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직업의 회원분들이 계셔서 아동 유치원 교육 보조나 작문 교실 등에 참가 하도록 연결해주시고 아동교구등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훈춘시 공상연합회의 섬김의 모습이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포스코 현대 물류 유탄공사 |

포스코 현대물류유탄공사는 2015년부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에 법인장님과 직원분들이 각 15분씩 조를 이뤄 돌아가며 후원 및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이들 얼굴도 익숙해지고 다일 어린이집의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가장 필요하고 어려운 일들을 찾아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베 트 남



천은영, 현은미, 박현주, 천세영님 |

베트남 다일공동체의 사역을 위해 본부에서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천은영 대리님이 동생들과 함께 베트남 밥퍼를 방문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박현주, 천세영 자매님은 역시나 선생님다운 모범을 몸소 보여주는 등 설거지와 테이블을 끝까지 윤기 나게 닦아 주었으며, 현은미 자매님은 땀 흘리는 모습도 아름다울 만큼 밥퍼를 찾는 어르신들과 아이들 한분 한분에게 웃는 모습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짧은 휴가를 이용해서 베트남 밥퍼를 찾아준 아리따운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윤정님 |

우리나라 5월은 '가정의 달'이죠? 2016년 이곳 베트남 밥퍼의 5월도 '가정의 날'이었습니다. 본부의 천은영 대리님이 다녀간 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최윤정 부원장님이 베트남 밥퍼를 찾아주셨습니다. 한분 한분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최윤정 부원장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며 섬김을 받으시는 분들의 얼굴에도 함박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자 방문해준 최윤정 부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캄 보 디 아



나들섬 선교회 |

나누고 돌아보고 섬기는 선교회~!

매년 두세 차례 해외선교 봉사를 떠나는 나들섬선교회는 매년 어김없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찾아 나누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찬식 목사님 외 7분이 캄다일을 찾아 밥퍼 봉사를 하셨으며 미리 준비하신 밥퍼 후원금과 학용품, 옷가지를 전달해주셨습니다. 또한 아동결연을 맺은 아동에게 특별 선물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매년 꾸준히 섬겨주시는 선교회에 감사합니다.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도움으로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에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시엠립 센터에 정수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쿱 생협에서는 조합원들이 수백만 개의 페트병 뚜껑을 모아 정수기 자체 비용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난 5월 핑택 오산지역 조합원들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방문하셔서 조합원들이 지원한 정수시스템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아이들이 그 물을 즐겨 마시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밥퍼 배식 봉사도 해 주셨습니다. 조합원들은 '뚜껑 모으기'라는 작은 정성을 모았더니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하게 된 태산 같은 일이 되었다며 뿌듯해하였습니다. 열심을 다해 밥퍼 봉사를 마치고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주셨을 뿐 아니라 즉석에서 십시일반 모금해서 후원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페트병 뚜껑 모으기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아이쿱 조합원들이 계셔서 더욱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Union International School in Philippines |

필리핀에 있는 유니는 국제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캄보디아 시엠립 밥퍼센터에서 봉사했습니다. 매년 해외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아브라함 조 선생님은 학생들과 매년 다일공동체 시엠립 센터를 찾으십니다. 조 선생님은 학생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놀이터를 지원하여 정리정돈하였으며, 좀 더 깨끗하고 청결한 놀이터가 되면 좋겠다고 하시며 놀이터 개선을 위해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더욱 신나게 뛰어 놀 아이들의 맑고 밝은 얼굴이 그려지는 듯하여 참 감사합니다.



북경한인소년소녀합창단 |

중국 북경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에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여정을 통해 합창단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어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시엠립 밥퍼 센터에서 밥퍼 봉사를 하였으며, 밥퍼 전에 합창과 태권무를 선보였습니다. 몇 살 많은 형 누나들의 공연을 본 센터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마냥 즐거워하였습니다. 합창단은 손수 중국 한인사회에서 후원품을 모집해서 의약품, 간식 등을 풍성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맛 난 간식을 맛본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 병원작은천국



경희여고 녹황 |

경희여고 녹황은 날짜를 지정하여 매번 저희 다일작은천국에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 아름다운 봉사 동아리입니다. 매번 올 때마다 입소자들의 웃음꽃을 피워주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다주는 귀한 봉사자들입니다. 또한 봉사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해가 바뀌어도 새로운 후배들과 함께 오직 입소자들의 행복을 위해 오는 봉사자들이기도 합니다.
항상 해피바이러스를 몰고 오는 '경희여고 녹황 동아리'입니다.



송인중 샤프론 봉사단 |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저희 다일작은천국 엘리트 실습생이신 이근배 선생님의 소개로 송인중 샤프론 봉사단에서 봉사를 오셨습니다. 다일작은천국 입소자들을 위해 손수 제작한 카네이션과 맛있는 떡을 가져오셨습니다. 샤프론 봉사단 덕분에 저희 입소자들의 어버이날은 마음뿐만 아니라 입맛도 딱 찬 하루였습니다. 엘리트 실습생에 엘리트 봉사단!!
이근배 선생님과 송인중 샤프론 봉사단이 최고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노래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밝은 빛 봉사단 |

밝은 빛 봉사단은 매번 저희 다일작은천국 입소자들의 생신 케이크를 챙겨주는 봉사단입니다. 놀라운 것은 직접 만들 뿐만 아니라 입소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새긴 케이크를 가져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입소자들을 챙기시는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밝은 빛 봉사단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입소자분의 생신을 챙겨주셔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 수 있도록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석관고등학교 3학년 단체팀 |

저희 다일작은천국의 No.1 봉사단체인 석관고 3학년 학생들과 선생님입니다. 한창 바쁠 시기인 고등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단 한 번도 "힘들다, 못하겠다, 다른 일 시켜주세요."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팀입니다. 자발적인 자세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인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최고의 봉사단입니다. 특히 이 팀은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단체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본 적이 없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팀이기도 합니다.
항상 다일작은천국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는 선생님과 학생분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 문의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다일천사병원&다일작은천국 02-2213-8004

다일공동체법인사무국(디자인,영상) 02-2212-8004

자원봉사자들의 연락 기다립니다!

봉 사 이 야 기



시립대 RCY팀 강혜수 |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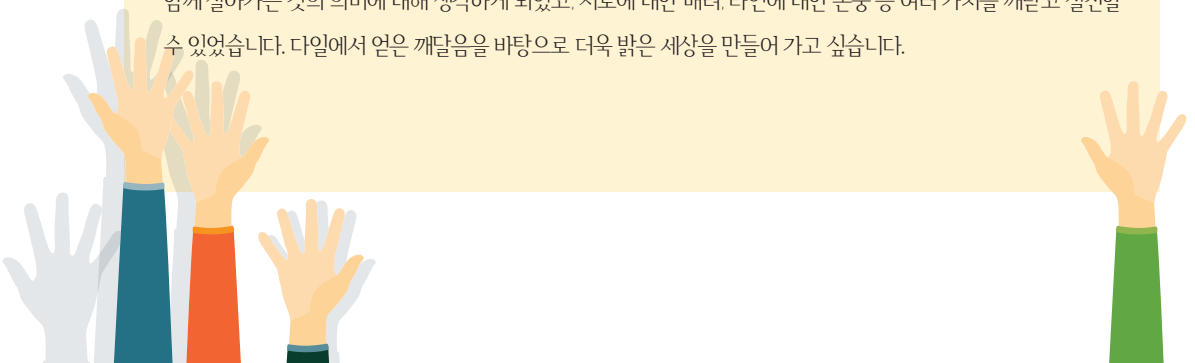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RCY 봉사 단원 강혜수입니다.

저희 단원들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느꼈고, 동기들과 함께 RCY를 만들었습니다. 봉사처를 알아보던 중 가까운 곳에 좋은 취지로 설립된 다일작은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으로 정기봉사를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과 산책하기, 면도해드리기, 물품 정비, 청소, 주방 보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어르신들과 산책하기와 어르신들에게 면도를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산책하러 간다고 좋아하시던 모습으로 보아 바깥에 자주 나가기 힘들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있음으로 인해 산책하러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면도를 해드리는 중에도 많이 자란 수염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을 때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여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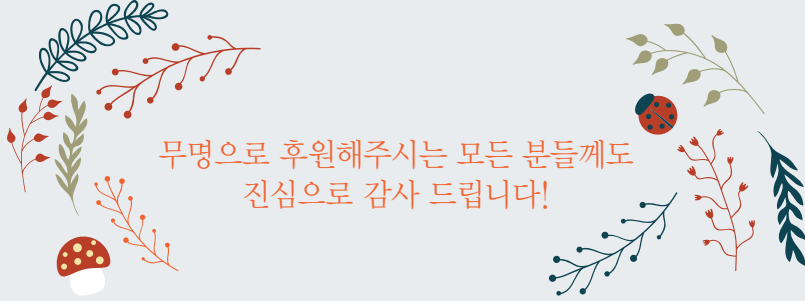
저와는 다른 세대를 사셨고 다른 경험을 한 분이지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왠지 모르게 할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부듯하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제가 배워가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존중 등 여러 가치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일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욱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p>신규후원회원 16. 04.16~16. 06.15</p>	<p>(주)대한주정판매, 4T CEO FORUM, JT친애저축은행, wings바운스&마술파티, 강도영, 강에스더, 강은숙, 계인숙, 고미경, 고송희, 고오상, 그루터기교회, 그린베이비, 그린엔텍배송비, 김경량, 김경선, 김경옥, 김광자, 김귀택, 김기열, 김기현, 김길자, 김동연, 김동하, 김두운, 김명란, 김미심, 김미희, 김민수, 김병조, 김선미, 김선희, 김소형, 김수인, 김숙이, 김순옥, 김승욱, 김승훈, 김신욱, 김양국, 김영진, 김용기, 김유이, 김종인, 김종진, 김지은, 김종성, 김태원, 김행형, 김현희, 김형자, 김희은, 남궁을순, 남부교육청시설지원과, 노혜미, 동천, 류삼현, 문예지, 문정훈, 문현숙(김덕자), 문효진, 박금배, 박동현, 박미덕, 박병철, 박상순, 박상준, 박설희, 박성준, 박세영, 박소연, 박신재, 박영임, 박옥선, 박용기, 박용주, 박재덕, 박정진, 박지환, 박찬일, 반승원, 사랑조, 사미선(한정미), 서영지, 서정미(한상훈), 서창렬, 설상수, 손병일, 손지아, 손평화(박이령), 송유빈, 송유설, 송진일, 수원성성품학교, 승운종합건설(주), 신경희, 아이나, 라유치원, 안인자, 안재인, 양승희, 양은하, 오인규, 용인상갈소망교회, 원종석, 유성일, 유진상, 윤수라, 윤종월, 이경규, 이경화, 이광수, 이광영, 이근배, 이대형, 이민정, 이상훈, 이서연, 이서인, 이서하, 이성건, 이숙남, 이숙희, 이영미, 이영수, 이옥늬(은세계식물원), 이용희, 이원재, 이은정, 이정훈, 이해용, 이현규, 이현희, 이호정, 이호주, 이흥미, 일이오펙토리, 임경택, 임미영, 임지영, 임현택, 장우진, 장창호, 전주명, 전주환, 정경연, 정동민, 정병섭, 정안순, 정원찬, 정진미, 정평룡, 정형중, 조규철, 조규태, 조민정, 조성욱, 조우희, 조원섭, 조혜나, 주대영, 주지미, 최맥령, 최서욱, 최영주, 최인선, 최재준, 최점순, 최주리, 큰빛교회, 하종인, 한국과학고등학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외국인학교 중학교 학생회, 한성, 한예지, 한진희, 함께현대합창단, 함자현, 함정기, 현한울, 해원여자중학교, 홍정은(윤상국), 황규상, 황미혜</p>
<p>다일천사병원&작은천국 16. 04.16~16. 06.15</p>	<p>후원물품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알보젠코리아), 네오메디팜(의약품), 영일제약(의약품), 요셉의원(치과용 의료장갑 30박스), 허순덕 목사님(의약품)</p>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p>캄보디아 다일공동체 16. 04.16~16. 06.15</p>	<p>후원금 / Alice Zhao, ICOOP 생협, KIS 제주 비전트립팀, SGI 서울보증, SFP 민들레봉사단, SBS 비전트립(최종현,한지오), 객재성, 김영희/성용애(서울 압구정 광림교회 꽃꽂이 선교회), 김형준/이현/이진, 김종걸, 경주구정교회, 나돌섬선교회, 다문화복지과, 대박, 대한적십자사, Methodist(홍공), 문인선교회, 북경 한인 소년소녀 합창단/강미나, 비인학교, 숲속 키즈 유치원, 신동현,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신일중고등학교, 이도수, 정찬영, 정경식, 제천 로타리 클럽 회장 및 회원일동(송악 윤치국), 최명숙/지원, 카도, 프놈펜 좋은학교, 프놈펜 제일감리교회, 한연, 모금함(ABA뱅크, JINO JEM, 리버사이드호텔, 울슨앙코르호텔, 울슨파라다이스호텔 캐나다뱅크)</p> <p>후원물품 / KIS 제주 비전트립팀(옷), 고구려대학교 다문화복지과(학용품,지구본), 나돌섬선교회(옷, 기념품, 가방), 무명(학용품), 박옥분(약품), 북경한인소년소녀합창단(분유,비타민,약품,과자), 장흥 로타리클럽(치약,칫솔, 옷, 신발), 최명숙(라면)</p>
<p>중국 다일공동체 16. 04.16~16. 06.15</p>	<p>후원금 / 김계영, 김성재(Obey & Praise), 다일졸업생 모임 정기후원, 리일+조홍광, 민경식(북경), 연길 미치과, 전지향 친척, 전 영광제빵 드보라 부부, 최연진, 한해연+한연, 무명1</p> <p>후원물품 / 권윤경(과일, 라면2B), 림예화+한원철(아동 간식, 채소, 옥수수쌀), 무지개 애심협회(치즈 떡볶이 20봉투), 인터넷 협회(영화관람), 애심찰떡(떡), 전영복(딸기 2B), 준량 동사무소(학용품), 훈춘 한인 어머니 모임(옷 20벌), 훈춘시 공생련 협회(소풍 차량, 식비, 선물 지원), 한해연(아동 주1회 간식 지원, 아동절 영화 관람 지원), 무명(쌀, 우유)</p>
<p>베트남 다일공동체 16. 04.16~16. 06.15</p>	<p>후원금 / A PLUS, DAEWOO INTERNATIONAL, LOTTERIA, NAHAL, POSCO VIETNAM, THANH CONG, VEGAS, 기업은행, 김경중원장(U.E.C학원), 김일기, 김미덕님, 대장금,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신덕현님, 아리랑화학, 아산상선, 이정자님, 정아연님, 조덕재님, 조종근님, 참조은광성교회, 천은영, 천세영, 현은미, 박현주, 최태인님, 최태정님, 추원미님, 평화교회, 호치민중앙교회</p> <p>후원물품 / A PLUS(밥돌이 인형), Bethel Vina(책가방), POSCO ICT(쌀), Sweet Factory(빵), THANH CONG(바나나, 김치, 비타민), VEGAS(설탕, 라면, 우유), 김사복님(초코파이), 사이공드림교회(라면, 우유),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바나나, 김, 초코파이, 쌀), 양선옥, 통큰소(훈제통닭), 허정은 집사님(김밥, 잡채), 무명(신발),</p>
<p>필리핀 다일공동체 16. 04.16~16. 06.15</p>	<p>후원금 / 필다일현지시스템(15,600원), 필다일현지시스템(16,900원)</p> <p>후원물품 / 박성민 목사님 부부(브래지어, 지우개, 크레파스), 이슬기(쌀50kg)</p>
<p>네팔 다일공동체 16. 04.16~16. 06.15</p>	<p>후원금 / Ashik, kcc김지은 김지혜, University of Northwestern, 네팔장신대, 박미라, 선한주, 엄홍길휴먼재단/전남전기협회, 황선경</p> <p>후원물품 / 그린엔텍정수필터 3세트(60만원)</p>
<p>탄자니아 다일공동체 16. 04.16~16. 06.15</p>	<p>후원물품 / 일본인 타까시(헌 옷 1상자)</p>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을 비롯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며 양육할 수 있습니다.	
생쌀이 운동 (Rice Pot Relay)	무의탁노인과 독거노인, 북한전역과 어려운 지역, 해외 빈민촌을 돕기 위하여 쌀을 릴레이 후원하는 캠페인입니다.	
화해의 밥 운동	화해의 밥 나누기 캠페인은 작은 갈등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화해의 밥을 함께 나누는 운동입니다.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공동체의 의료지원사업(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해외 보건의료사업, BCP 등)을 위한 후원입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공동체)	sc제일은행	150-10-012464
	국민은행	010-01-0619-487
	기업은행	017-033086-01-013
	농협	351-0741-3770-13
	신한은행	140003287625
	우리은행	151-05-001902
	우체국	010983-01-001609
	하나은행	214-890006-95604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계좌번호 : 334040926776

International Swift code (한국 및 외국에서 송금시) : BOFAUS3N

Domestic ABA code (미국내 타주에서 송금시) : 026009593

Routing # (미국 조지아에서 송금시) : 061000052

은행주소 : GA7-914-01-01, 2608 Pleasant Hill Road Duluth, GA 30096

TEL: 678-323-0222

캐나다 후원계좌

TD Canada Trust Bank

Account No : 5222930

Transit No : 13542

Inst. No : 004

Account Name :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미주에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미국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다일공동체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 나눔운동본부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12471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번지
Tel.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중국 다일공동체

133300 吉林省 琿春市 新安街 多一少年之家
Tel. +86-433-753-8004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Tel. +977-98494-58330 / +977-98038-00670

포카라 지부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Tel. +977-98607-76685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Plots No. 192 at Jangwani Beach, Kinondoni Muniopality,
Dar_es_salaam city Tanzania
Tel. +255-755-154-246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44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1-416-824-4831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만원의 행복
월 1만원 _____ 구좌

일대일아동결연
월 3만원 _____ 명

기타
월 _____ 원

일시후원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다일레거시10(유산기부)

기타 _____ 원

재능기부

영문 통/번역(한->)영

디자인/영상

기타 _____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연락처 _____ SMS수신동의 이메일 _____ Email수신동의

주소 _____ 우편물수신동의

CMS 자동이체 동의서 (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시민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공동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 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일도 목사와 함께 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아름다운 세상찾기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일정안내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4박 5일)

174기 7/12~7/16

175기 8/2~8/6

176기 9/13~9/17

2단계 작은 예수 살아가기 (4박 5일)

49기 8/16~8/20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 (5박 6일)

22기 8/8~8/13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설곡산갈보리채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신청 및 문의

문의 : 031 585 2004

010 2720 5145

홈페이지 : www.dail.org

갈보리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 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귀하를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 10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

Tel. 031 585 2004 류주형 형제 010 2720 5145

네비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밥퍼에서는 매 주일 오전 8시에 셔틀 버스가 출발합니다.



후원방법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시면 문의 답변 및 다일공동체의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받아 보실 수 있고
더욱 간편하게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작성

예금주 서명 必



후원신청서
사진 전송



다일직원
확인전화